

박대통령, 외교·안보 ‘성과’ 내치는 ‘부진’

여야, 強대強 대치

민주 “천막투쟁 강화” 새누리 “결산국회 하자”

국정원 국조 보고서 채택 난망

정국 경색을 촉발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권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빈손으로 국회에 돌아갈 수 없다’는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강경 투쟁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탓이다. 여야간 협상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장외 천막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전을 각오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여당이 정하는 일정에 맞춰 따라가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간 투자가 양보되는 만큼 천막에서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천막을 칠 때 미리 장기전을 각오했다. 여기서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주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경

남 창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정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우여 대표는 “당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고 국제 경쟁 속에서 엄중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강소기업, 중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정국 경색을 해소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동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 간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야당 소속 국정특위 위원들이 이날 청와대를 방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3·15 부정선거를 연관짓는 공개서한을 전달한 것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공식 종료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서 국정특위 차원의 보고서 합의 채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규탄’ 각계각층 확산

광주·전남 목사들 식발투쟁·전국 문인들 시국선언

광주·전남지역 목사들이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기 위해 식발 투쟁에 나서고, 전국의 문인들이 시국선언에 가세하는 등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정원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구태에 모여 시국 선언 이후 계획과 전망 등을 논의·토론하는 교수대회를 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광주·광주동 등 3개 노회 인권위원회는 목사·신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국정원 국가기관사태에 대한 연합기도회’를 열고 김병균, 장한권, 정화익 목사 등 3명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식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불법 개입, 공작정치를 감행한 데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박

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인들도 시국선언에 가세하고 나섰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24일부터 이틀간 인천시 강화도에서 열리는 ‘2013 한국작가대회’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인천선언’을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는 공동으로 22일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순천대 교직원 수련원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교수·학술 4단체 지리산권 교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시국선언 참가 전국 100여개 대학 중 전남대·조선대·목포대·동아대·부산대·울산대 등 지리산권 대학 교수 60여명이 참가했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시국선언 대학들의 집단 의견 표명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성공단 정상화·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소득’

서민경제 방치·냉랭한 對野관계 등 기대 못미쳐

다. 청년층 실업은 호전 기미가 없고 민간소비,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전력대란과 전월세난은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수첩’에 적힌 인사를 기용하는 인사패턴이 부실한 검증으로 이어지면서 있던 인사 파동을 낳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취임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인재풀의 빈약함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영남 중용 인사로 ‘국민통합’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치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야당과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와 거리를 두

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박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의 성실성과 꾸준함, 의지력 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다만,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불통’ 이미지를 극복하고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광주·광주동 등 3개 노회 인권위원회 목사들이 22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식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파동·윤창중사태·증세 논란에도 ‘견고’ 여 “국정 안정 초석” 야 “독선·불통 여전”

朴 지지율 60% 안팎 유지

리더십의 명암에도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견고’한 편이다.

외교나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물’이 나온 게 없는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의 비교적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선 득표율 51.6%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19%가 그 이유로 ‘대북정책’ (19%), ‘주관·소신 있고 여론에 끌려가지 않음’ (13%), ‘열심히 노력한다’(7%) 등을 꼽은 것을 보면 원칙과 신뢰, 위기극복, 섬세로 대표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취임 초 장 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잇따른 낙마, 즉 ‘인사 파동’ 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어 미국 방문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56%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윤창중 사태’ 이후 51%로 다시 떨어졌다.

중국 방문 이후 한때 63%로 올라 취임 후 ‘정점’을 찍은 지지율은 최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54%로 급락했다가 최근에는 6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집권 6개월, 선거 후 8개월이 됐는데 유일하게 국민과 대화를 안 한 대통령”이라며 “진솔하게 뭐가 어렵다고 털어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함께 하자’라고 설득하면서 통합을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극명하게 갈린 대통령 평가

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외교·대북 분야에서 성과를 앞세워 안정된 국정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독선과 불통의 6개월’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22일 구두는 평에서 “외교·대북 분야는 A학점”이라며 “무엇보다 대북 정책에서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안착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내리기 이르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63~64% 수준으로 대선 득표율

보다 높는데 이것으로 지난 6개월이 설명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대북 정책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평소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왔는데, 지난 6개월간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특히 박근혜정부의 실정(失政)으로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인사 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위장기로 국민 기만, 대걸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등을 꼽았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 핵심공약들도 폐기하거나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시우나.헬스) 계약완료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1층 약국 69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2층 PC방 203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